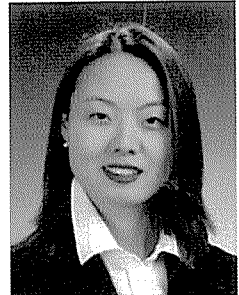


당뇨병으로 시작된 한 가족의 어려움,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준영 / 한강성심병원 사회복지과

“술, 담배 한 번 한 적 없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눈도 안 보이고, 이제 투석까지 받아야 한다니... 내가 도대체 왜 이래야 합니까?”

첫 상담에서 이수연씨가 의료사회복지사에게 제일 먼저 한 말입니다.

50세의 이수연(가명)씨는 20여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누나들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진단받은 후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교육받은 대로 약도 시간 맞춰 복용하고, 식사도 칼로리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저울에 달아 양을 조절하였습니다. 병원의 당뇨병교실 뿐 아니라 대한당뇨병학회와 사단법인 당뇨협회에서 개최하는 대국민 공개강좌에도 참석하여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가정형편

이수연씨는 사업을 하고, 부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다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이수연씨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이수연씨 가정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집도 처분하고, 부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의 보증금도 뺏겼습니다. 이수연

씨가 운전일을 하면서 재기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경제적인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빚 독촉, 생계유지 어려움으로 인해 혈당관리를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늘 과로를 하였고,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약 복용은커녕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부도로 인한 스트레스, 과로,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당뇨병 관리소홀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결국 2004년에 시력을 잃었고(시각장애 1급), 2005년 말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관리를 열심히 하였을 때 7% 이하였던 당화혈색소가 2005년에는 13.8%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미용실을 운영해서 얻는 100여 만원의 수입으로 월세내고, 빚을 갚고 나면 가족들이 한달 생활하기에도 빠듯하였습니다. 아들은 군복무 중이어서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고등학생이었던 딸은 수업료가 밀려 한 때 졸업이 불투명하다는 통보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이수연씨의 당뇨병, 부인의 암발생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이수연씨 부인이 유방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수술을 받았고, 현재 항암치료 중이지만, 이수연씨

가 충격을 받거나 앓을까 염려되어 건강이 조금 안 좋은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암수술 사실은 비밀로 하였습니다. 부인의 암 선고로 가족들이 부인에게 신경을 쓰게 되면서 이수연씨의 당뇨병 관리가 소홀해져 혈당조절을 위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연씨가 당뇨병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당약을 복용해야 하고, 주 2~3회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입원치료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약값, 투석치료비에 더하여 치료비 마련도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이수연씨와 가족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심시일반으로 조금씩 도움을 주시면, 이수연씨가 다시금 힘을 얻고, 당뇨병 관리를 하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도움주실 곳 : 우리은행 155-08-367561 (예금주 정순이 <환자의 부인>)

문의 : (02)2639-5768 (한강성심병원 사회복지과 김준영)

*환자와 가족의 요청으로 부득이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함께 하면 **큰 힘** 이 됩니다.
기부를 받습니다.

□ 기부안내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공익성 기부금 손비 인정단체로, 기부해 주시는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보내주시면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기부금 송금계좌 : 우리은행 195-138439-13-001(예금주: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문의전화 : 02-771-8542

-기부금공제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10%

※관련법규 : 본 협회에 기부해주시는 후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 1항 제 3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되어 손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인단체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www.dangnyo.or.kr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는 「당뇨병 예방과 치료」를 모토로 우리나라 400만 당뇨인의 건강, 권익,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